

기초치의학이 죽어가고 있다

치의신보 편집국

우리나라 학문과 교육체계의 문제점으로 기초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학문은 점점 돈과 관련된 분야로만 발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를 생각하기 어려운 기초 학문 분야나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이 죽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문이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 사회 곳곳에 병리학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식사를 잘하여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균형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심하면 당뇨, 뇌졸중 등 성인병으로 진행될 수 있듯이 학문도 마찬가지다. 골고루 발전을 이뤄야만 균형잡힌 식생활처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철학이, 사회학 등이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 당해서는 사회기반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물리학이, 화학이, 그리고 기초 치의학이나 기초의학 등이 천대되어서는 머지않아 모래 위의 성처럼 사회가 경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공학이나 임상 치의학 및 임상 의학 등은 기초가 튼튼해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에 비싼 로열티를 물면서 핵심기술을 빌려오는 우를 범하지 않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신원이 파악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를 1만5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 약 4800만명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예과 2년, 본과 4년의 과정을 거치며 교육 중 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등의 기초치의학 과목을 이수해 왔다.

기초치의학이라는 기본 토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밑둥이 부실한 건물과 같이 임상치의학이 부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현재 11개 치과대학의 기초치의학 분야는 교수 인력 면에서, 연구비 지원면에서, 앞으로 기초치의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수 면에서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함에 직면해 있다.

현재 11개 치과대학의 졸업생 수는 800여명. 한해에 배출되는 치과의사는 1000여명에 이른다. 과연 이들 중 몇명이 미래의 기초치의학을 짊어지고 계속하고 싶어할까?

기초치의학 현황

치대 기초교실 통틀어 조교 1~2명 불과

일반적으로 치과대학에서 기초치의학은 예방치학교실, 구강병리학교실, 구강해부학교실, 치과재료학교실, 구강생리학교실, 구강미생물학교실, 치과약리학교실, 구강생화학교실 등 8개를 일컫는다.

서울치대 등 11개 치과대학의 기초치의학교실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조교의 숫자가 몇명인지 파악해보면 기초치의학의 미래의 인력수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서울치대의 경우에는 2명, 경희치대의 경우 예방치학교실과 구강해부학교실 2개과에 조교 1명이 배치

데 있으며 연세치대의 경우에는 구강생물학과에 1명만이 있을 뿐이다.

연세치대 구강생물학과 이승일 교수는 “모든 대학의 상황이 이와 같다”며 “이는 기초치의학을 지원하려는 자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그 심각성을 말했다.

또한 기존 치과대학 중에서도 기초치의학 8개 과목을 모두 갖추지 않은 학교도 여럿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의학계열도 마찬가지여서 의학계열의 기초 의학 분야의 교수현황이나 조교의 현황도 열악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채규대 가톨릭의대 병리학과 교수는 “국내 41개 의과대학중 그래도 기초의학 교육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한다는 몇개 대학조차 미국의 150여개 의과대학 수준과 비교하면 기초의학 교수 수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과 비교해도 역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대생 1,229명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만이 졸업후 기초 의학을 전공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발간한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실운영현황(2000~2001)을 보면 전국 41개 의대 대학원생 3,316명 중 학부에서 의학을 전공한 학생의 임상대 기초의학 비율은 11%, 전임교원(이과학전공 포함) 7,446명 중 기초의학 비율은 16%, 전체 논문 31,090편 중 기초의학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기초 의학을 전공한 전임교원의 수는 실제 필요로 하는 숫자의 절반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기초치의학의 문제점

교수의부족, 연구장비 부족, 연구비·운영자금 부족 등 총체적 부족 우려

한국의 치의학은 과거 지나치게 임상치의학 쪽으로 치우쳐 발전해왔으며 병원 수입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임상치의학 위주의 운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66

한국의 치의학은 과거 지나치게
임상치의학 쪽으로 치우쳐 발전해왔으며
병원 수입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임상치의학 위주의 운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99

연세치대 구강생물학과 이승일 교수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사립대의 경우 치과대학의 존재가 치과병원의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임상치의학에 치우쳐 재정이 뒷받침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초치의학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치과대학 졸업자가 기초치의학 분야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치의학 위주의 병원 분위기 △경제적 불안감 △졸업 후 진료의 불확실성 △교수 T/O의 부족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기초치의학의 연구기반 및 여건 열악 △기초치의학 교수진의 경쟁력 부족 △임상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공의 길이 확실한 개원으로 진로를 정한다는 것이다.

신제원 경희치대 해부학과 교수는 “앞으로 치의학 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사람만이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기초치의학 분야에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메리트 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치과대학 출신자로서 기초치의학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초치의학 분야의 교수의 부실, 또한 연구장비 부족, 연구비 및 운영자금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 등 기초치의학 분야의 총체적인 부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치의학 분야의 문제점 중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임상치의학 위주로 치과대학이 운영되며 교실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제도나 자연계열 학과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원제도, 기초와 임상 또는 협력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다.

고재승 서울치대 해부학과 교수는 “기초치의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연구비 지원만큼이라도 충분히 된다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치의학 활성화 방안

기초치의학협의회 출범 희망적, 정부 및 관계 기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 필요

지난 10월 10일 기초치의학계에 고무적인 한 단체가 탄생했다.

고재승 서울치대 해부학과 교수를 회장으로 하는 기초치의학협의회가 출범된 것이다.

이는 국내 기초치의학의 열악함을 인식하고 기초치의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관련학회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초치의학협의회에서는 기초치의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정책 개발과 기초치의학회 학술활동 지원, 산학 협동연구 개발 및 지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치의학협의회에는 치협 산하 분과학회인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해부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대한치과기재학회, 대한구강생물학회 등 7개 학회가 참여했다.

고재승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구강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치의학의 초석이 되기 위해 기초치의학 종합학술대회 개최와 종합학술지 발간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기초치의학이 생명과학에서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야라는 사실을 각 분야에 인식시켜 각계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치과계에서도 기초치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치의학적 배경을 가진 우수 인력들이 기초치의학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고 이들이 생명공학분야와 연계돼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6

협의회는 구강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치의학의 초석이 되기 위해
기초치의학 종합학술대회 개최와
종합학술지 발간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기초치의학이 생명과학에서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야라는 사실을
각 분야에 인식시켜 각계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99

이를 위해 기초치의학 부문에 대한 시설, 자금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고급인력의 치의학분야 진출, 법령·제도·시설·장비·인식제고 등의 인프라 지원으로 기초치의학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명공학과 치의학의 발전으로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5일 ‘기초의과학육성종합계획(안)’에서 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20개 의과대학에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의대 졸업생 중 연 3백~4백명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하고 정부가 인건비,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셔널 펠로십’ 제도를 도입하며 기초의과학육성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이 이제야 정부나 대학종사자, 관련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기초분야의 육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인간 게놈지도가 밝혀지고 이를 이용해 불치병 등을 규명하여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속에서 이제 육성기구나 단체를 만드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기회에 치과계에서는 정부 및 관련 단체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인재들의 참여로 기초치의학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